

## [토론 요지]

## 세미나 토론 요지

강 현 수 | 중부대학교 교수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세 분의 발표 내용 중 특히 그동안 수도권 규제 관련 논의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들에 주목합니다.

첫째, 김용웅 박사님의 발표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제도적 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진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지금 폐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규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웅 박사님이 오늘 발표에서 언급해 주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계획적 통제 수단 사례들의 대안별 실효성에 대하여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변창흠 교수님도 오늘 해 주셨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수도권 지역에서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으나, 실제로 수도권 내 각 도시들의 도시계획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창흠 교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분의 논의에 제 견해를 간단히 덧붙인다면 규제의 방식과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차원적으로 정교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개선 같이 수도권 정책과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정책 부문도 수도권의 집중 혹은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늘 정준호 교수님의 발표에서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 논의에서 별로 연구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각 지역별 순재정 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에서 얻어지는 효용과 이들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지불하는 세금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순재정 편익을 정준호 교수가 분석한 결과, 서울이 가장 크고, 경기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이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준호 교수님이 애써서 수행하신 이 분석 결과는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차원의 정부 정책, 특히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좋은 시사점을 주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변창흠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구절 -금융부문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면, 공간부문에서도 개별기업과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욕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국토공간의 양극화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훼손을 낳을 수 있다. - 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국가 전체는 물론이고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규제나, 비수도권 지역의 압력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스스로 수도권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총량과 환경총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정부 사이에 상호 신뢰에 입각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위하여 우선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수도권 정책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 논의에 앞장서서 나서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 주기를 기대합니다.